

제 11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Offline)

+1명(Online)

2019년 2월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스미스의 강의와 기타 저작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 외에는 문자로 된 그의 작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스미스의 학식과 관심의 막대한 폭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은 새뮤얼 존슨의 《사전》의 한 논평, 유럽의 지적 추세에 관한 그리고 언어들의 기원에 관한 논문들, 회화 · 연극 · 음악 그리고 무용을 망라하는 예술들에 관한 에세이들, 영국과 이탈리아의 시에 관한 단평들, 고대 물리학과 철학의 역사에 관한 논문들, 그리고 《천문학의 역사》에 관한 70페이지 학위 논문이다.

운 좋게, 우리는 또한 그의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 그리고 《법학 강의》로부터 나온 약간의 그의 학생들의 노트들도 가지고 있다.

스미스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미완성 원고들을 태워주기를 바랬다.

• 통일적인 주제

스미스는 경제학자나 도덕학자나 역사가나 문법학자라기 보다 사회 심리학자이다. 그는 인간 마음이 어떻게 세계와 다른 인간들을 다루며 그것이 어떻게 이 관계들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창조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에게 과학은 현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인간 마음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현실을 분석하고 배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언어, 도덕 그리고 경제는 모두 하여간 마음들의 만남에서 생기는 유용한 사회 구조들이다. 법률과 정의는 인간들이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을 얻는지에 관한 것이다.

• 스미스의 과학 철학

《천문학의 역사》는 -중략- 별 관측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인간 마음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해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과학적 이론화를 하게 되느냐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이론들이 어떻게 제안되고, 검증되며, 대체되는지를 보여주고,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한 예로 사용하여, 무엇이 '좋은(good)' 이론을 만드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한다. 그것은 모두 놀랍도록 현대적이어서, 과학을 -'현실'에 관해서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해석에 관한- 세계를 모형 구성하려는 시도로서 간주한다.

• 스미스의 과학 철학 - 추측과 기각

코페르니쿠스는 자구가 아니라 태양을 천구들의 중심에서 두고 체계를 제안했다. 이것은 행성들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설명하기 더 쉽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해석에서는 지구도 또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다음에는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도 행성들이 그것들이 운행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운행하는지에 관한 간단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력의 영향이었다. 몇 개의 간단한 물리적 규칙들이 행성들의 타원 궤도와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조화될 수 없었던 혜성과 같은 기타 현상들의 출현을 설명할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고 거의 우아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관찰된 사실들에 들어맞았다.

애덤 스미스의 경험주의 철학에 대한 얘기들이다.

• 의사 전달의 심리학

강의들 - 오직 학생 노트의 형태로서만 존재한다 - 과 자기의 에세이, 《언어의 최초 형성에 관한 고찰》에서, 스미스는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함으로써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중략- 그러나 그의 설명은 진화적이다. 언어는, 인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장하고, 그 발전의 도구가 된다고 그는 믿는다.

언어란 마치 유전자와 같이 영향을 미치고 또 효율적인 것이다.

• 의사 전달의 과학

의사 전달이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상이한 주장들이 상이한 기법들을 필요로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중략- 그러나 열쇠는 사람들과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들은 천성적으로 그러한 공감에 아주 능하고, 그것으로 언어는 의사 전달할 최초의 가장 조잡한 시도들로부터 복잡하고 고도로 이로운 사회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 스미스의 정부와 공공 정책 - 노동과 교환

'당신이 맥주나 쇠고기를 얻으려고 양조업자나 고깃간 주인에 의뢰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가 당신에게 일정한 가격에 그것들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익이 될지 설명한다. 당신의 그의 박애에 말을 걸지 않고, 그의 자애에 말을 건다.

박애가 아닌 자애에 호소한다고 할 때, 자애는 Selfish가 아닌 Selfloved이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부가 화폐이며 화폐를 보존하기 위해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중상주의 견해를 스미스가 공격하는 것을 발견한다. 방탕한 생활로, 부유한 탕아가 자본을 낭비할 수 있고, 이것은 산출물과 번영을 서서히 해치는데, 설사 어떤 주화도 유통에서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부와 화폐는 명백히 같은 것이 아니다. -중략-

그는 우리의 물질적 진보의 추진력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 스미스의 정부와 공공 정책 - 무능한 정부

만약 생산, 교환 그리고 자본 축적이 물질적 진보의 길이라면, 무엇이 그것을 막는가? 너무나 자주, 그것은 무능한 정부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자본 축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자기들을 도둑질에서 보호할 수 없고 자기들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채로 놔 둘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부지런하고 저축할 동기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자연스러움을 막는 것은 인위적인 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국가다.

•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여담

애덤 스미스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으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의 자기 이익적인 행동들이 하여간 전반적인 사회적 편익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략- 사실상, 《천문학의 역사》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스미스는 자기의 전 작품에서 그 구절을 단지 두 번만 사용하며, 그것도 정말이지 보편적으로 추정되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애덤 스미스의 경험주의 철학에 대한 얘기들이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개념이다.

• 부자들은 빈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도덕 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신(Providence)'의 손이 경제적 보상을 균등화한다고 암시한다. 부자들은 빈자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없다. -중략-

부자들은 단지 그 무더기로부터 가장 귀중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빈자들보다 거의 더 많이 소비하지 않으며, 그들의 타고난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단지 자기들 자신의 편리만 의도할지라도, -중략-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개선들의 결과를 빈자들과 나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약 지구가 자기의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구획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며, 종의 증식에 대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듯 시장경제, 자유 교환 체제는 공산사상에 비해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

•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결과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욕망들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지만, 종종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들과 갈등한다. 점차, 우리는 무슨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용인되고, 파괴적인 폭력에 이르지 않는지 터득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인간 공감의 도움을 받아, 정의의 규칙들을 알아내는데, 그것들에 의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할 수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도, 우리는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식들로 협조하는 법을 터득하는데, 설사 그것이 우리의 의도의 일부가 아니라 할지라고 그렇다.

2020.02.28.

애덤스미스 입문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